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 및 영향요인 분석

하 문 선¹⁾

송 연 주[†]

본 연구는 한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랑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별 우울 수준의 차이 및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성차, 연령, 결혼여부, 신경증, 불안애착, 정서조절)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잠재집단분석(LCA)을 실시한 결과,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의 잠재집단은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 모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L-H(7.7%)집단, 세 요인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L-MH(33.6%)집단, 세 요인 모두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L-M(39.8%)집단, 세 요인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L-ML(14.6%)집단, 세 요인 모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L-L(4.3%)집단으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각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ANOVA 검증 결과, L-MH집단이 L-ML집단에 비해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L-M, L-ML 및 L-L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혼은 기혼에 비해 L-M, L-ML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L-H, L-MH집단보다 L-M, L-ML, L-L집단에, L-M집단보다 L-ML과 L-L집단에, L-ML집단보다 L-L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연령과 신경증, 정서조절은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에 대한 다양한 하위 잠재집단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 사랑, 사랑유형, 잠재집단분석, 성인

1)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교신저자 : 송연주,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조교수,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1인문관 509호, Email: songyj@deu.ac.kr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랑에 대해 배우지도 혹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왔다. 사랑은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나 경험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여겨왔을 뿐이다. 여기에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 사랑에 관한 환상과 편견이 더해지다 보니 정작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쉽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송연주, 하문선, 2020).

연구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기는 쉽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만은 과학적 접근보다 신비적 영역으로 남겨두려는 태도를 고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산업화 이후 사랑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랑을 학문적 주제로써 다루게 되었다(권석만, 2018; 권순달, 2004).

사랑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Maslow(1962)는 그 당시 잘 알려져 있던 Freud(1922)의 사랑을 결핍의 사랑(deficiency love)으로 간주하면서, 자기실현적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적 사랑(being love)과 구분 지었다. Lee(1973)는 사랑이 단 하나의 구인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사랑을 개인이 사랑하는 유형(styles)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6가지 사랑유형, 즉 에로스(eros, 열정적 사랑), 루두스(ludus, 유희적 사랑), 스토르게(storge, 우애적 사랑), 마니아(mania, 소유적/의존적 사랑), 아가페(agape, 이타적 사랑), 프라그마(pragma, 실용적 사랑)를 제시하였다. Hatfield

(1984, 1988)는 사랑을 열정적인(passionate) 사랑과 우애적인(companionate) 사랑으로 구분하여 사랑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을 부각하기도 하였다(Sternberg, 1997).

사랑의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한 이론으로 Sternberg(1986, 1988)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Triangular Theory of Love)을 들 수 있다. Sternberg는 사랑의 행동과 경험을 연구한 자료 및 기존의 여러 이론에 근거하여, 사랑이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책임감(commitment)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친밀감이란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가까움, 유대, 결속 등의 정서적 측면으로 관계 내에서의 '따뜻함'을 의미하며, 열정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로맨스, 신체적 매력, 성적인 관계와 같은 사랑의 '뜨거움'을 반영하여 상대와 하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의 상태를, 책임감은 사랑의 '차가운' 측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지적인 측면을 내포한다. Sternberg는 이러한 사랑의 세 요인 간 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랑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세 요소 중에서 친밀감만 있다면 누군가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뜻하지만, 친밀감만 없다면 공허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세 요인이 모두 포함된 사랑만이 가장 완전한 사랑(consummated love)임을 강조하면서, 세 요인이 모두 없는 경우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나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친밀감은 높은 열정이나 책임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책임감을 더할수록 친밀감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친밀감이 안정적일 때는 열정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Baumeister & Bratslavsky, 1999). 또한, 요인들의 강도는 관

계의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열정은 급속히 발전해서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만 (Ahmetoglu, Swami & Chamorro-Premuzic, 2010; Lemieux & Hale, 2002), 관계가 오래될수록 책임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cker & Davis, 1992; Sorokowski et al., 2020; Sternberg, 1986). 성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열정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Schröder & Schmiedeberg, 2015). 즉,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들은 관계의 지속 기간이나 환경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세 요인 간의 역동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비록 관계의 지속에 따른 세 요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해도, 실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세 요인이 모두 나타나거나 반대로 모두 함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Sorokowski et al., 2020). 세 요인 간 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랑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한 Sternberg 역시 세 가지 요인들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연속선상에서 크기의 차이를 보일 뿐이므로, 실제 관계에서는 세 요인들 간 차이가 나타날지라도 세 요인이 모두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권석만, 2018). Acevedo와 Aron(2009)은 관계가 성숙해질수록 세 요소는 모두 나타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관계가 더욱 굳건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정민아, 2004) 및 중년기 기혼남녀(김영수, 박재우, 2021)를 대상으로 사랑유형을 군집분석한 결과, 세 요인을 모두 포함하나 단

지 수준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2~3개의 군집이 도출된 바 있다.

한편, 사랑이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사회문화적 맥락 또한 낭만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사랑을 각기 다르게 정의 내리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이다(Beall & Sternberg, 1995). 예를 들어, 열정의 수준은 중국인에 비해 미국인에게서 높게 나타났고(Gao, 2001), 중국계 캐나다인이 유럽계 캐나다인에 비해 세 요인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Marshall, 2008). 한국인의 경우, 친밀감에서는 미국인과 비교했을 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한국인은 열정과 책임감 순으로, 미국인은 책임감과 열정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권순달, 2006). 다시 말해, 비록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의 세 요인이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도출되어 문화적 보편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권순달, 2006; Sternberg & Grajek, 1984; Sorokowski et al., 2020), 그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사랑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의 세 가지 요인인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이 우리 문화에서는 어떠한 크기와 강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랑유형과 심리사회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

사랑의 세 요인들이 실제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면, 개인의 사랑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요인들, 예를 들어 성(gender), 연령, 성격, 관계(결혼여부, 애착) 등의

요인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사랑유형에 따른 성(gender)차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친밀감, 열정, 책임감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Levy & Davis, 1988),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에게서만 열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ker & Davis, 1992). 국내에서는 특히 책임감이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권순달, 2004;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연구자들은 이를 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 즉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 의해 이성간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연인관계에 있는 미혼남녀 모두 친밀감, 열정, 책임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민아, 2004; 정태연 등, 2000). 기혼 남녀의 경우에는 친밀감과 열정의 변화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두 요인 모두 결혼 후 일정 기간 점수가 상승하다 그 이후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였지만, 책임감은 결혼 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이후 증가하였다(최혜경 등, 1999; Schröder & Schmiedeberg, 2015). 한편, 기혼이 미혼에 비해 높은 친밀감과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하나, 결혼여부보다는 교제 기간이 길수록(권순달, 2004), 혹은 보다 진지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Acker & Davis, 1992) 높은 책임감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열정은 떨어지나 책임감이 더 증가하기도 하고(Ahmetoglu et al., 2010), 연령이 증가하면서 열정과 친밀감은 증가하였지만 오히려 책임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Sumter, Valkenburg & Peter, 2013). 반면, 국내

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친밀감, 열정, 책임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민아, 2004).

다수의 연구는 신경증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Davila, Karney, Hall & Bradbury, 2003; Heaven, Smith, Prabhakar, Abraham & Mete, 2006; Watson et al., 2000), Lee(1973)의 사랑유형과 성격 간의 연구들 역시 일관되게 신경증과 소유적 사랑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Davies, 1996; Wan, Luk & Lai, 2000). 사랑유형과 성격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실성이 높은 경우 친밀감과 책임감이 높고(Ahmetoglu et al., 2010; Engel, Olson & Patrick, 2002), 열정은 외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Watson, Hubbard, & Wiese, 2000), 신경증과 열정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hmetoglu et al., 2010; Engel et al., 2002). Sternberg의 사랑유형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에, 신경증과 같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요인과 Sternberg의 사랑유형 간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특히 애착이 사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해 왔다. 연구자들은 안정 애착이 친밀감 및 책임감과 관련이 있으며(Madey & Rodgers, 2015) 친밀감, 열정, 책임감이 모두 높게 나타날수록 불안과 회피애착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정태연 등, 2000; Levy & Davis, 1988). 특히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높은 책임감을 나타냈으며(채지은, 박정윤, 2021; Schindler, Fagundes & Murdock, 2010),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높은 소유욕과 강한 집착을 보이는 소유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이는 결국 사랑유형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애착과 사랑유형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나 관계의 질 등을 정서조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정서조절이란 정서적으로 자극이 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나가는 능력으로(이지원, 이기학, 2014),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회피나 억제, 반추 등과 같은 감정 조절에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외부 대상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lores, 2010; Purnamaningsih, 2017). 또한, 이들의 이러한 대인관계 방식은 문제에 직면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조절하지 못해 오히려 병리적인 관계 양상을 가져오게 되며(송연주, 하문선, 2021), 이성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할수록 상대방에게 더욱 집착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양서연,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미루어볼 때, 정서조절과 사랑유형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서조절이 사랑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잠재집단분석의 필요성

지금까지 사랑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랑유형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각 하위요인의 수준에 따라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을 취해왔다. 그러나 변수중심적 접근의 연구를 통해서는 사랑유형을 구성하는 요인이 개인 내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유형학 이론가들은(Moffit, 1993; Patterson, DeBaryshe, & Ramsey, 1989) 특정 행동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다양한 하위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인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활용하여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에 대한 잠재집단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재집단분석(LCA)은 각 요인별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집단의 수를 추가함으로써 하위집단별 이질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집단구분 방식은 평균이나 중앙값과 표준편차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고·저 집단으로 분류하는 극단적인 분류이거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의미 있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Cohen, 2003).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성인들도 사랑유형의 하위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각 하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실제적 사랑 경험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의 목적

비록 사랑이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라 해도, 사랑은 개인이 속한 환경 속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의 내려지게 된다. 최근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 속 사랑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고, 이와 동시에 부적응적 사랑의 모습으로 경험되는 어려움과 고통은 더해지고 있다(송연주, 하문선,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성인의 사랑유형 하위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잠재집단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랑이 성장과 성숙, 삶의 의미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된 바(김종일, 2013; Frankl, 2005),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에 따른 심리적 적응 변인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성차, 결혼여부, 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롯하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신경증, 관계적 특성인 불안애착, 인지행동적 특성인 정서조절이 이들의 사랑유형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랑유형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에 따른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성차, 결혼여부, 연령, 신경증, 불안애착, 정서조절이 사랑유형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의 잠재집단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경기, 대전·세종·충남 및 광주·전남·전북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군집표집, 편의표집 및 스노우볼 표집방법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특히 이들은 대학 및 대학원의 강

표 1. 연구대상 분포

연 령	성 별				합 계
	남		여		
	미혼	기혼	미혼	기혼	
20대	80	4	134	8	226
	(36.7%)	(1.8%)	(35.1%)	(2.1%)	(37.6%)
30대	28	32	39	47	146
	(12.8%)	(14.7%)	(10.2%)	(12.3%)	(24.3%)
40대	2	42	7	95	146
	(0.9%)	(19.3%)	(1.8%)	(24.9%)	(24.3%)
50대	0	30	2	51	83
	(0.0%)	(13.8%)	(0.5%)	(13.4%)	(13.8%)
전 체	218		383		601
	(36.3%)		(63.7%)		(100%)

좌를 듣는 학생들이거나 그들에 의해 소개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표집 결과 총 606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후,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여자 1명과 연애 경험이 없는 참여자 4명을 제외하고 총 601명을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실시에 앞서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표한 참여자에 한해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사랑유형

본 연구에서는 사랑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Sternberg의 사랑유형척도(Sternberg, 199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ternberg(1986)가 제시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의 세 요소인 친밀감 12문항, 열정 12문항, 헌신 12문항의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밀감(intimacy)은 사랑의 따뜻함으로 정서적 측면을, 열정(passion)은 사랑의 뜨거움으로 동기적 측면을 반영하며, 책임감(commitment)은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행동적 측면으로서의 사랑의 인지적 측면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2로 나타났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정도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에 의해 표준화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척도를 전경구와 이민규(1992)가 한국 상황에 맞게 축소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1점)’에서 ‘매우 그랬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2이었다.

신경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의 신경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John과 Srivastava(1999)의 BFI(Big Five Inventory)를 김지현, 김복환 및 하문선(2011)이 번안·역번안 후 타당화한 5요인 성격 특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경증 3문항, 외향성 3문항, 개방성 3문항, 성실성 3문항, 친화성 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의 3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불안애착

불안애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rennan과 Clark 및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와 Waller, 그리고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개정,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 2개의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안’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두 혹은 버림받는 것과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꺼림이나 불편을 의미한다. 하위 차원별로 각각 18문항

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만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정서조절

정서조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2000)이 구성한 12문항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및 지지추구적 양식의 총 3개 하위요인으로, 각 문항은 ‘거의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역채점 문항을 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하위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잠재집단의 유형 파악 및 각 집단별 특성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사랑유형의 각 요인별 수준에 따른 하위 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순차적으로 집단의 수를 추가함으로써 하위 집단별 이질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사용하였다. LCA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거가 사용되는데(Muthén & Muthén, 2000), 일반적으로 정보 기준지수(Information Criterion: IC)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ABIC(Adjusted BIC; Sclove, 1987)가 활용되며, 이 지

수들은 가장 작은 값을 산출하는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나타낸다. 또한 LMR-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정된 χ^2 차이로 검증한다. 즉, k개의 집단 모형과 k-1개의 집단 모형을 비교할 때, LMR-LRT의 p-value 값이 유의하면 k개 집단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집단 모형을 선택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잠재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분류의 질(Quality of classification)을 나타내는 Entropy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집단별 사례 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Hill, White, Chung, Hawkins와 Catalano(2000)는 표본 수의 1% 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기준과 함께 앞에서 제시한 다른 모든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McCrae et al., 200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랑유형에 대한 잠재집단의 유형을 파악한 후, 다음 단계로 이들 잠재집단 간 심리적 적응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결혼여부,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들이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0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결 과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 분류

사랑유형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에 대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 다양한 하위잠재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잠재집단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AIC, BIC, ABIC, Entropy지수, LMR-LRT p -value값 및 최소집단의 사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모형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기준지수(Information

Criterion: IC)인 AIC, BIC 및 ABIC 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2, 그림 1). IC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모형이 복잡할수록 IC지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잠재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IC지수들의 감소가 둔화되는 지점에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하문선, 2018). 분석결과, 표 2(그림 1)와 같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C지수들이 점차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5개 집단부터는 감소가 둔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ntropy지수는 3개 집단에서 증가하다가 다시

표 2. 사랑유형 잠재집단의 모형 적합도

	2	3	4	5	6
AIC	12376.312	12148.677	12066.225	12013.161	12001.957
BIC	12420.298	12210.257	12145.400	12109.930	12116.320
ABIC	12388.550	12165.811	12088.255	12040.086	12033.777
Entropy	.751	.800	.782	.793	.808
LMR-LRT p -value	.000	.024	.251	.000	.081
Smallest class	257(42.8%)	74(12.3%)	46(7.6%)	26(4.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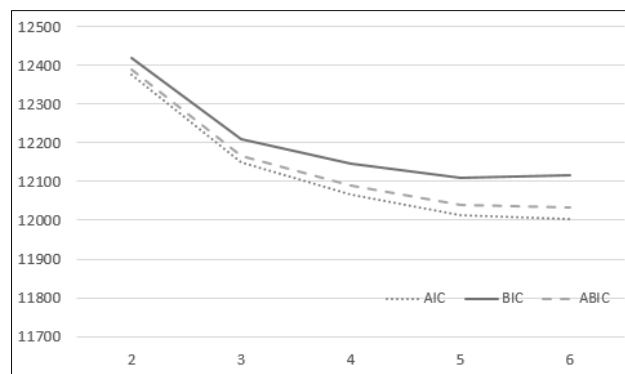


그림 1. 사랑유형 잠재집단 수에 따른 IC지수의 변화

감소하며 5개, 6개 집단으로 갈수록 점점 1에 가까워 양호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Kreuter, Yan, & Tourangeau, 2008). 그러나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한 LMR-LRT p -value값은 2집단, 3집단과 5집단에서만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최소 집단의 사례 수는 6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1%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Hill et al., 2000). 따라서 모든 기준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에 대한 잠재집단 수는 5개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랑유형 잠재집단 양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성인의 사랑

유형에 대해서는 최적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 5개의 잠재집단이 분류되었다(그림 2). 특히 세 가지 하위요인 즉 친밀감, 열정, 책임감에 대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을 L-H(Love-High) 집단(7.7%)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을 L-MH(Love-Moderate High) 집단(33.6%)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을 L-M(Love-Moderate) 집단(39.8%)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을 L-ML(Love-Moderate Low) 집단(14.6%)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을 L-L(Love-Low) 집단(4.3%)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인구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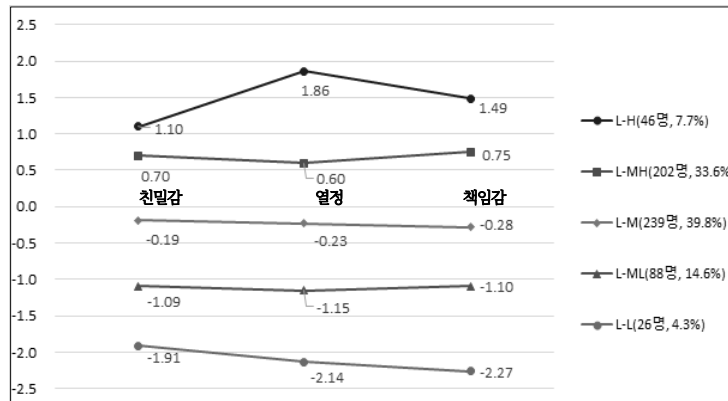


그림 2. 사랑유형의 잠재집단 비교

표 3. 사랑유형 잠재집단 구성요인의 표준점수(Z점수)

Class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L-H		L-MH		L-M		L-ML		L-L	
	N=46(7.7%)		N=202(33.6%)		N=239(39.8%)		N=88(14.6%)		N=26(4.3%)	
	M	SD	M	SD	M	SD	M	SD	M	SD
친밀감	1.102	.296	.696	.551	-.190	.671	-1.093	.698	-1.910	.916
열정	1.860	.363	.598	.448	-.231	.464	-1.150	.497	-2.136	.410
책임감	1.488	.289	.749	.457	-.282	.481	-1.095	.509	-2.265	.542

표 4. 사랑유형 잠재집단별 성별, 연령 및 결혼여부에 따른 비율

Class	여성 (명)	남성 (명)	전체 (명)	Class	20대 (명)	30대 (명)	40대 (명)	50대 (명)	전체 (명)	Class	미혼 (명)	기혼 (명)	전체 (명)
1 (L-H)	22 (5.8%)	24 (11.0%)	46 (7.7%)	1 (L-H)	12 (5.3%)	24 (16.3%)	6 (4.1%)	4 (4.8%)	46 (7.7%)	1 (L-H)	18 (6.2%)	28 (9.1%)	46 (7.7%)
2 (L-MH)	120 (31.4%)	82 (37.4%)	202 (33.6%)	2 (L-MH)	65 (28.9%)	58 (39.5%)	53 (36.3%)	26 (31.3%)	202 (33.6%)	2 (L-MH)	85 (29.2%)	117 (37.9%)	202 (33.7%)
3 (L-M)	158 (41.4%)	81 (37.0%)	239 (39.8%)	3 (L-M)	101 (44.9%)	47 (32.0%)	62 (42.5%)	29 (34.9%)	239 (39.8%)	3 (L-M)	129 (44.3%)	109 (35.3%)	238 (39.7%)
4 (L-ML)	62 (16.2%)	26 (11.9%)	88 (14.6%)	4 (L-ML)	37 (16.4%)	14 (9.5%)	17 (11.6%)	20 (24.1%)	88 (14.6%)	4 (L-ML)	46 (15.8%)	42 (13.6%)	88 (14.7%)
5 (L-L)	20 (5.2%)	6 (2.7%)	26 (4.3%)	5 (L-L)	10 (4.4%)	4 (2.7%)	8 (5.5%)	4 (4.8%)	26 (4.3%)	5 (L-L)	13 (4.5%)	13 (4.2%)	26 (4.3%)
전체 (63.6%)	382 (36.4%)	219 (100.0%)	601	전체 (37.4%)	225 (24.5%)	147 (24.3%)	146 (13.8%)	83 (100.0%)	601	전체 (48.5%)	291 (51.5%)	309 (100.0%)	600
$\chi^2 = 10.903^*$ (Cramer*V = .135)				$\chi^2 = 37.681^{***}$ (Cramer*V = .145)					$\chi^2 = 9.573^*$ (Cramer*V = .129)				

주. 각 잠재집단에 따른 비율은 여성(또는 남성) 집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령대(20대~50대)에 따른 집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혼(또는 기혼) 집단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랑유형 잠재집단 비율을 각각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 연령 및 결혼여부에 따라 잠재집단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χ^2 검증) 모두 유의미하였고 효과크기(Cramer's V)가 작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다른 연령대보다 30대가, 기혼이 미혼보다 L-H, L-MH 집단에 더 높은 비율로 속해 있었다.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 간 우울 수준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들은(김종일, 2013; Frankl, 2005) 사랑이 성장과 성숙, 삶의 의미, 삶의 질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과 심리적 적응 변인인 우울 간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표 5. 사랑유형 잠재집단 비교

구 분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5집단	<i>F</i> (Scheffe)
		L-H	L-MH	L-M	L-ML	L-L	
우울	<i>M</i>	16.32	15.65	16.84	18.69	18.04	6.279 ^{***}
	<i>SD</i>	4.879	4.913	4.782	5.764	4.8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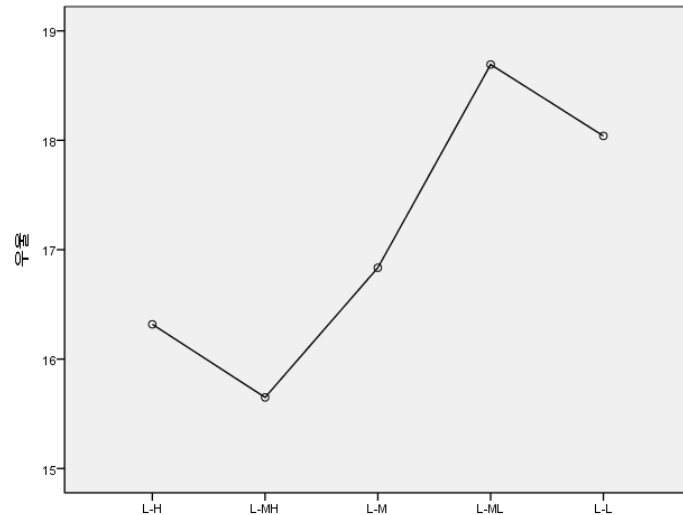


그림 3. 사랑유형 잠재집단별 우울 수준

위해 사랑유형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랑 유형의 잠재집단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후검증결과 L-ML 집단이 L-MH 집단에 비해 더 우울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결혼여부,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 중 성격적 특성인 신경증, 정서 및 관계적 특성인 불안애착, 인지행동적 특성인 정서조절 변인이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과 결혼여부는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잠재집단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성격적 특성인 신경증과 인지행동적 특성인 정서조절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관계적 특성인 불안애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L-H, L-MH 집단보다는 L-M, L-ML, L-L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미혼은 기혼에 비해 L-H, L-MH 집단보다는 L-M, L-ML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L-H, L-MH 집단보다는 L-M, L-ML, L-L 집단에, L-M 집단보다는 L-ML, L-L 집단에, L-ML 집단보다는 L-L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보다 미혼인 성인이, 불안애착을 더 높게 경험하는 성인이 관계에 있어서 적응적이지 못한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6. 사랑유형 잠재집단 분류에 대한 영향 변인

비교집단	기준집단	변인	계수	표준오차	t	Exp(B)
2집단 (L-MH)	1집단 (L-H)	성(gender)	.615	.371	1.66	1.850
		결혼여부	.514	.528	.97	1.672
		연령	.023	.024	.96	1.024
		신경증	-.017	.076	-.22	.983
		불안애착	.007	.007	1.00	1.007
		정서조절	-.061	.045	-1.36	.941
3집단 (L-M)	1집단 (L-H)	성(gender)	1.271	.389	3.27**	3.566
		결혼여부	1.245	.564	2.21*	3.474
		연령	.035	.026	1.35	1.036
		신경증	-.139	.079	-1.76	.871
		불안애착	.041	.008	5.13***	1.041
		정서조절	-.074	.047	-1.57	.929
4집단 (L-ML)	1집단 (L-H)	성(gender)	1.651	.457	3.61***	5.213
		결혼여부	1.442	.670	2.15*	4.231
		연령	.056	.030	1.87	1.057
		신경증	-.134	.092	-1.46	.874
		불안애착	.064	.009	7.11***	1.066
		정서조절	-.089	.054	-1.65	.914
5집단 (L-L)	1집단 (L-H)	성(gender)	2.323	.666	3.49***	10.211
		결혼여부	.588	.943	.62	1.801
		연령	.019	.040	.48	1.019
		신경증	-.208	.121	-1.72	.812
		불안애착	.089	.013	6.85***	1.093
		정서조절	-.062	.072	-.86	.940
3집단 (L-M)	2집단 (L-MH)	성(gender)	.656	.236	2.78**	1.927
		결혼여부	.732	.360	2.03*	2.078
		연령	.012	.016	.75	1.012
		신경증	-.122	.070	-1.74	.885
		불안애착	.033	.005	6.60***	1.034
		정서조절	-.014	.027	-.52	.987

표 6. 사랑유형 잠재집단 분류에 대한 영향 변인

(계속)

비교집단	기준집단	변인	계수	표준오차	t	Exp(B)
4집단 (L-ML)	2집단 (L-MH)	성(gender)	1.036	.334	3.10**	2.818
		결혼여부	.929	.455	2.04*	2.531
		연령	.032	.021	1.52	1.033
		신경증	-.117	.065	-1.80	.889
		불안애착	.057	.007	8.14***	1.058
		정서조절	-.029	.039	-.74	.972
5집단 (L-L)	2집단 (L-MH)	성(gender)	1.708	.589	2.90**	5.519
		결혼여부	.074	.833	.09	1.077
		연령	-.004	.035	-.11	.996
		신경증	-.191	.103	-1.85	.826
		불안애착	.082	.012	6.83***	1.085
		정서조절	-.001	.061	-.02	.999
4집단 (L-ML)	3집단 (L-M)	성(gender)	.380	.301	1.26	1.462
		결혼여부	.197	.453	.43	1.218
		연령	.020	.019	1.05	1.020
		신경증	.004	.058	.07	1.004
		불안애착	.024	.006	4.00***	1.024
		정서조절	-.015	.035	-.43	.985
5집단 (L-L)	3집단 (L-M)	성(gender)	1.052	.567	1.86	2.864
		결혼여부	-.657	.799	-.82	.518
		연령	-.016	.033	-.48	.984
		신경증	-.069	.097	-.71	.933
		불안애착	.048	.011	4.36***	1.050
		정서조절	.012	.058	.21	1.012
5집단 (L-L)	4집단 (L-ML)	성(gender)	.672	.594	1.13	1.959
		결혼여부	-.854	.840	-1.02	.426
		연령	-.036	.035	-1.03	.964
		신경증	-.074	.102	-.73	.929
		불안애착	.025	.011	2.27*	1.025
		정서조절	.028	.062	.45	1.028

*** $p < .001$, ** $p < .01$, *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LCA)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 성인의 사랑유형 하위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잠재집단의 유형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랑유형 잠재집단에 따라 심리적 적응 변인인 우울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성별, 결혼여부, 연령, 신경증, 불안애착, 정서조절이 사랑유형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사랑유형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고 하위집단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CA)을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 성인의 사랑유형은 5개의 하위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5개의 하위 잠재집단은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이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L-H(Love-High)집단, 세 요인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L-MH(Love-Moderate High)집단, 세 요인 모두 평균 수준을 나타내는 L-M(Love-Moderate)집단, 세 요인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L-ML(Love-Moderate Low)집단, 세 요인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L-L(Love-Low)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세 요인의 점수가 평균보다 모두 높은 L-H집단과 L-MH집단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른 연령대보다 30대가,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은 비율로 속해 있었다. L-H집단은 사랑유형을 구성하는 요인 중 열정, 책임감, 친밀감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L-MH집단은 친밀감, 책임감, 열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보이며(정대연 등, 2000; Acker & Davis, 1992),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높은 친밀감과

책임감을 나타낸 연구결과(권순달, 2004)를 지지한다.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이 5개의 하위 잠재집단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중년기 기혼자의 사랑유형이 2개의 군집(세 요인이 평균보다 모두 높은 집단과 평균보다 모두 낮은 집단)으로, 청소년의 사랑유형이 3개의 군집(세 요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집단, 중간 집단, 낮은 집단)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영수, 박재우, 2021; 정민아, 2004)와 집단 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집단 내에 사랑유형을 구성하는 친밀감, 열정, 책임감 세 요인이 동시에 함께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세 요인 간 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사랑유형이 존재할 수 있더라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세 요인이 모두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으로(권석만, 2018; Sorokowski et al., 2020), 국외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에서 세 요인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세 요인의 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으나(권순달, 2006; Gao, 2001; Marshall, 2008),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은 범문화적인 사랑의 공통 요소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Sorokowski et al., 2020). 세 요인으로 이루어진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임을 언급한 Sternberg(1986)의 주장에 근거해 본다면, 상대를 향한 따뜻한 친밀감과 뜨거운 열정에 더해 관계에 대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를 완전한 사랑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각 잠재집단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사랑유형의 잠재집단 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인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L-MH집단과 세 가지 요인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L-ML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L-MH집단이 L-ML집단에 비해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친밀감과 열정 및 책임감의 수준이 균형있게 상승을 보이는 L-MH집단이 비교적 건강하고 적응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L-MH집단과 L-H집단 간 우울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L-MH집단의 친밀감과 열정 및 책임감 수준의 균형과 낮은 우울 점수를 고려할 때,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친밀감과 열정을 경험하며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균형 있는 사랑의 수준이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L-ML집단에서의 높은 우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미혼인 상태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고, 혹은 파트너가 옆에 있어도 스스로 경험하는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결혼이라는 제도에 있을지라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해 우울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친밀감, 열정, 책임감이 모두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김영수, 박재우, 2021)를 일정 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결혼여부보다 현재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한 요소임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건강하지 못한 사랑, 예를 들어 상대를 소유하려 하거나 집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거나 자신의 결핍을 상대로부터 채우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경우라면 이들이 나타내는 사랑의 방식이 우울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송연주, 하문선, 2021). 사랑 유형과 우울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선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후 이들 간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관계 속에서의 사랑유형 혹은 사랑의 방식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국 성인의 사랑유형 각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결혼여부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관계적 특성인 불안애착은 잠재집단 구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성격적 특성인 신경증과 인지행동적 특성인 정서조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세 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은 L-H, L-MH 집단보다 세 요인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L-M, L-ML, L-L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 집단에서 열정(Acker & Davis, 1992)과 책임감(권순달, 2004; 정태연 등, 2000)이 더 감소됨을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사랑유형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열정적이고 우애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데 비해, 여성은 유희적이거나 소유적이며 실용적인 사랑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한송이, 홍혜영, 2010).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남성은 여성보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열정과 친밀성 및 헌신을 보이며 안정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혼 역시 기혼에 비해 L-H, L-MH 집단보다는 L-M, L-ML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비록 선행연구(권순달, 2004; Acker & Davis, 1992)에서는 결혼여부보다는 교제 기간이 길거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책임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현재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의 사랑을 보다 안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독신인 사람보다 결혼한 사람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본다면(권석만, 2018), 기혼자들이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큼을 제시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 불안애착은 사랑유형 잠재집단 구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L-H, L-MH집단보다 L-M, L-ML, L-L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L-M집단보다 L-ML와 L-L집단에, L-ML집단보다 L-L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인들은 불안애착을 더 높게 경험할수록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 매우 부적응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애착이 높은 친밀감과 열정 및 책임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정태연 등, 2000; Levy & Davis, 1988; Madey & Rogers, 2009; Schindler et al., 2010)를 지지하며, 높은 불안정 애착과 소유적 사랑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결과(노유진 등, 2006)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불안애착을 가지

는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표상으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내부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으려는 결핍된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Sternberg, 1997). 이는 심리적 허기를 관계로 채우려 하는 욕구가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록 상대가 옆에 있다고 해도 그 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불안애착을 가진 이들이 사랑의 세 요인 모두 점수가 낮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애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사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불안애착을 형성한 것은 아닌지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숙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의 성인들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친밀감, 열정, 책임감의 세 요소를 모두 나타내는 사랑유형을 보이며, 세 요인이 균형있게 상승을 보이는 집단(L-MH)이 건강하고 적응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잠재집단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랑유형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요인이 모두 평균보다 낮으며 -1SD미만 수준에 해당되는 집단의 사람들이 약 20%, 우리 사회 성인의 약 1/5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에(Acevedo & Aron, 2009), 이들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사랑의 모습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별다른 노력 없이 사랑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랑의 마술적 힘을 믿거나, 그것이 불륜이고 범죄일지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는 무엇이든지 관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서준, 2011. 10. 01.; 송연주, 하문선, 2020). 즉,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반면,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이 기반된 성숙한 관계의 질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해 사랑에 대한 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ternberg는 여러 관점에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현실에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삼각형과 이상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삼각형을 구성하여 비교함으로써 현실과 이상적 사랑 간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랑의 요소가 부족한지, 어떤 요소를 성장시켜야 보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연인 각자의 관점에서 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현재 사랑에 대한 각자의 삼각형을 만들어 세 요인의 양을 서로 비교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로의 사랑 모습을 비교해봄으로써 상대를 위해 사랑의 어떤 요인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권석만,

2018). 관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알고 표현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심리적 허기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도한 짐을 지우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강박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파트너 간 사랑유형을 파악한 후 비교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이성 간의 상호작용 경험은 이후 성인기 낭만적인 관계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Furman & Wehner, 1997).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데이트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바(백옥현, 2010), 추후 이들이 성인기에 어떠한 사랑 유형을 경험하는지 종단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관계 형성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비록 청소년기 부적응적 관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정서조절이 사랑유형의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이 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Davila, Karney, Hall & Bradbury, 2003; Heaven et al., 2006; Watson et al., 2000), 상대를 소유하려거나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소유적 사랑과 관련이 깊은 것(Davis, 1996; Lester & Philbrick, 1988)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랑의 세 요인과 신경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Ahmetoglu et al., 2010; Engel et al., 2002)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관계 내에서 보이는 개인의 부적응적 사랑 모습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면, 관계 내에서의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격적 특성이 사랑유형의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결혼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한국 성인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사랑유형의 잠재집단을 살펴보았지만, 추후 성인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집단별 잠재집단을 분류한 후, 하위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20대에 다소 치중되어 있어 추후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랑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랑유형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파트너 간 상호작용 내에서의 사랑유형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고, 상대방 효과를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활용하여 커플(dyad)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변수중심적 접근으로 관련성을 살펴 보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사랑유형 수준에 따른 하위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하위집단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종합적 개입 방안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18).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3판). 학지사.
- 권순달 (2004). 사랑의 이론과 측정도구의 생태학적 평가. *교육문제연구*, 21, 165-184.
- 권순달 (2006). ‘사랑’의 요인 구조 분석과 평가. *교육평가연구*, 19(2), 261-280.
-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97-524.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 박재우 (2021). 중년기 기혼자의 사랑의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의 차이.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1), 1-23.
- 김종일 (2013). 사랑척도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6(1), 51-64.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노유진, 박정운, 김양희 (2006). 성인 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12), 31-42.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백옥현 (2010). 고등학교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의 경험과 데이트관계의 지각. *청소년학연구*, 17(1), 1-32.
- 서준 (2011. 10. 01.). <충격세태> ‘불륜공화국’ 대한민국 ‘불륜 트렌드’ 실태. 일요

- 시사.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14833>
- 송연주, 하문선 (2020). 한국 단축형 사랑중독 척도(Korean-Love Addiction Questionnaire-Short Form: K-LAQ-SF)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501-524.
- 송연주, 하문선 (2021). 대학생의 신경증과 우울 간 관계에서 정서조절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1-29.
- 양서연 (2011). 사랑에 대한 환상, 자존감, 자아 분화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이성 관계 집착 행동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정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 정민아 (2004). 청소년기의 이성간 사랑 유형 분석-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채지은, 박정윤 (2021). 초기 성인기의 자기은폐,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이성관계 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305-323.
-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애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47-59.
- 하문선(2018). 아동기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행동의 중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양상과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699-725.
- 한송이, 홍혜영 (2010).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 연구. *통합치료연구*, 2(1), 25-48.
- Acevedo, B. P., & Aron, A. (2009). Does a long-term relationship kill romantic lov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3, 59-65.
- Acker, M., & Davis, M. H. (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1), 21-50.
- Ahmetoglu, G., Swami, V., & Chamorro-Premuzic, T.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dimensions of love,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length. *Arch. Sex. Behav*, 39, 1181-1190.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 Baumeister, R. F., & Bratslavsky, E. (1999). Passion, intimacy, and time: passionate love as a function of change in intima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1), 49-67.
- Beall, A. E., & Sternberg, R. J. (1995). The social construction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2, 417-438.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434-465). New York: Guilford.

- Cohen, A. (2003). *Numerical Analysis of Wavelet Methods*. Elsevier, New York.
- Davies, M. F. (1996). EPQ correlates of love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257-259
- Davila, J., Karney, B. R., Hall, T. W., & Bradbury, T. N. (2003). Depressive symptoms and marital satisfaction: Within-subject association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neuroticis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557-570.
- Engel, G., Olson, K. R., & Patrick, C. (2002). The personality of love: Fundamental motives and traits related to components of lo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839-853.
- Flores, P. J. (2010). 애착장애로서의 중독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김갑중, 박춘삼 역). 서울: NUN(원전은 2004년 출판).
- Frabley, R. C., Waller, N. F.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rankl, V. E. (2007).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이시형 역). 경기: 청아출판사(원전은 2005년에 출판).
- Freud, S. (1922). Certain neurotic mechanisms in jealousy, paranoia, and homosexuality. In *Collected Papers* (Vol. 2, pp. 235-240, 323). London: Hogarth.
- Furman, W., & Wehner, E. A. (1997).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S. Shulman & W. A. Collins (Eds.),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21-36). Jossey-Bass/Wiley.
- Gao, G. (2001).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Chinese and US American romantic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5(3), 329-342.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Hatfield, E. (1984). The dangers of intimacy. In V. Derlega (Ed.), *Communication, intimacy, and close relationships* (pp. 207-220). New York: Academic Press.
- Hatfield, E. (1988). Passionate and companionate love. In R. J. Sternberg & M. L. Barnes(Eds), *The psychology of love* (pp. 191-217).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aven, P. C. L., Smith, L., Prabhakar, S. M., Abraham, J., & Mete, M. E. (2006). Personality and conflict communication patterns in cohabiting coup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829-840.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 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02-138). New York:

- Guilford.
-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latent class analysis to item evalu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171(3), 723-738.
- Lee, J. A. (1973).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New Press.
- Lemieux, R., & Hale, J. L. (2002). Cross-sectional analysis of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testing the assumptions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 Rep.* 90, 1009-1014.
- Lester, D & Philbrick, J. (1988). Correlates of lo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689-690.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39-471
- Madey, S. F., & Rodgers, L. (2009).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Sternberg's Triangular Theory of Love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7, 76-84.
- Marshall, T. C. (2008). Cultural differences in intimacy: The influence of gender-role ideology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1), 143-168
- Maslow, A. H. (1962).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Princeton, NJ: Van Nostrand.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offitt, T. E. (1993). "Life 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 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r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urnamaningsih, E. H. (2017). Pers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Research*, 10(1), 53-60.
- Rado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 385-401.
- Schindler, I., Fagundes, P. C., & Murdock W. K. (2010). Predictors of romantic relationship formation: Attachment style, prior relationships, and dating goals. *Personal Relationships*, 17(1), 97-105.
- Schröder, J., & Schmiedeberg, C. (2015). Effects of relationship duration, cohabitation, and marriage on the frequency of intercourse in couples: findings from German panel data. *Soc. Sci. Res.* 52, 72-82.

- Schwartz, G. (1978). Estimation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S.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Sorokowski, P., Sorokowska, A., Karwowski, M., Groyecka, A., Aavik, T., Akello, G. ... & Sternberg, R. (2020). University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adaptation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riangular love scale in 25 countri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8(1), 106-115.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
- Sternberg, R. J. (1988). *The triangle of love: Intimacy, passion, commitment*. Basic Books (AZ).
- Sternberg, R. J. (1990). *A triangular theory of love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Yale University, New Haven, Manuscript.
- Sternberg, R. J. (1997). Construct validation of a triangular love scal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313-335.
- Sternberg, R. J., & Grajek, S. (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2), 312.
- Sumter, S. R., Valkenburg, P. M., & Peter, J. (2013). Perceptions of love across the lifespan: Differences in passion, intimacy, and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5), 417-427.
- Wan, W. N., Luk, C. L. & Lai, C. L.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loving styles among Chinese students in Hong Ko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169-175.
- Watson, D., Hubbard, B., & Wiese, D. (2000). General traits of personality and affectivity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elf-and partner-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68, 413-449.
- Woll, S. B. (1989).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correlates of loving sty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480-505.

논문 투고일 : 2021. 09. 28
1 차 심사일 : 2021. 10. 19
게재 확정일 : 2021. 11. 20

Analysis of Latent Classes and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Love Types of Korean Adults

Ha, Moon-Sun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ng, Yeon-Joo

Dong-eu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601 Korean adults into latent classes according to their love types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find variables that affect the latent classes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latent class analysis, the latent group for love types of Korean adults were classified into the L-H (7.7%) group, which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ll three factors of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and the L-MH (33.6%) group, which all three factor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the L-M (39.8%) group with the mean of all three factors, the L-ML (14.6%) group with all three factors lower than the mean, and the L-L (4.3%) group with the lowest all three factors. Also, as a result of ANOVA, the L-MH group was psychologically healthier and more adaptive than the L-ML group. As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analysis, femal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L-M, L-ML and L-L groups than males. In addition, singl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L-M and L-ML groups than those who were married. Also, the higher the anxiety attachment level,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belonging to the L-M, L-ML, and L-L groups than the L-H and L-MH groups, the L-ML and L-L groups than the L-M groups, and the L-L group rather than the L-ML groups. However, age, neuroticism, and emotional regulation did not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class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various latent classes for the love types of Korean adults more three-dimensionally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l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Key words : love, love type, latent class analysis, adult